

# 돈에는 현대세계의 본질이 투영돼 있다

게오르그 짐멜의 《돈의 철학》

김덕영 | 한국디지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게오르그 짐멜.

독일의 사회학자요 철학자며 예술이론가인 게오르그 짐멜은 전통적인 철학 이념과 방법과는 달리 일상적인 생활세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들과 현상들을 지향한다. 이들은 사실 실증적인 경험과학들의 인식대상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는 짐멜이 경험과학과 철학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적 가치의 화폐적 표현 고찰해** 짐멜의 철학적 주저인 《돈의 철학》(안준섭 외, 한길사)은 경험과학과 그것의 철학적 상한선인 형이상학과와의 관계를 명백히 보여준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경제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화폐경제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돈의 철학》은 경제학의 차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짐멜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식관심은 경제학의 피안에 위치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경제학과는 달리 돈을 수단, 재료 또는 상징으로 삼아 현대 문화 생활의 심층적 본질과 구조 그리고 의미를 총체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돈의 철학》은 경제학과 철학의 관계에 입각해서 〈분석편〉과 〈종합편〉으로 구성돼 있다. 전자는 인간의 심적 구조, 사회적 관계, 현실세계와 가치의 논리적 구조에 존재하면서 돈에 의미를 부여하고 돈과 가치, 돈의 본질 가치와 돈의 수단-목적의 관계를 다룬다. 이에 반해 후자는 돈이 인간의 내적 세계, 다시 말해 개개인의 생활 감정, 그들의 숙명의 연계고리 그리고 일반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개인의 자유, 인격적 가치의 화폐적 표현 그리고 돈과 생활양식의 문제를 고찰한다.

이와 같이 짐멜이 현대세계에 대한 철학적 인식의 대상으로 돈이라는 현상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지니는 현대세계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의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돈이라는 지극히 외적이고 개별적인 현상은 현대 정신세계의 전반적 범위를 결정적으로 각인하고, 이를 통해 현대 정신세계의 본질적인 존재와 운동 형식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이는 다름 아닌 유동성, 역동성, 관계성 그리고 상대성의 문제다. 돈은 이와 같은 존재와 운동 양식의 전형이며, 모든 것을 이런 존재와 운동 형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개개인의 특성이나 개성, 특질을 말살시켜버린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돈이라는 물질적-경제적 기반을 소유한 개인들은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인격을 발전시키고 개인적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돈은 현대인과 그들의 삶 및 행위에 대해 이중적 의의를 지닌다.

**실증과학과 미학이 교차하는 메타 과학적 저서** 돈을 통해 현대세계의 본질적 구조와 그 의미에 대한 철학적-형이상학적 해석을 추구하는 《돈의 철학》은 미학적 인식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 두 인식 범주와 형식의 결합은 근본적으로 상징적인 성격을 띠는 미학적 관찰 및 기술 방법이 개별적이고 외적인 것을 통해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형이상학의 표상과 선택적 친화력을 갖기 때문에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미학적 방법이란 개별적인 것에서 보편성을, 우연적인 것에서 법칙성을 그리고 외적이고 일시적인 것에서 사물의 본질과 의미를 통찰하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짐멜의 《돈의 철학》은 자본주의적 화폐경제의 발달이 현대세계에 초래한 사회학적, 경제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미학적 결과들과 의미들을 미학적 접근방법을 인식수단으로 해서 철학적-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한 책이다. 이렇듯 다양한 경험적-실증적 개별과학들과 미학, 철학이 교차하는 《돈의 철학》은 분명히 중층 결정적이고 메타 과학적인 성격의 저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짐멜의 《돈의 철학》은 그 이후의 철학적 연구의 바탕을 이루게 된다. 이를테면 1911년에 출판된 《철학적 문화. 에세이 모음집》은 모험, 유행, 성 문제, 여성문화, 종교문제, 문화문제 등을 철학적으로 다루고 있다. 짐멜은 여기에서 돈을 하나의 보기, 재료 또는 수단으로 한 현대세계의 본질과 그 구조적 특성, 그 의미에 대한 철학적-형이상학적인 총체적 해석을 돈 이외의 다양한 개별적 사실과 현상으로까지 확대한다.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며 우연적인 현상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현대세계의 심층적 본질과 의미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름 아닌 미학적 범신론의 문제이자 철학적 범신론의 문제다. ■

김덕영 교수는 독일 괴팅겐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디지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대의 현상학—게오르그 짐멜 연구》(주체·의미·문화—문화의 철학과 사회학) 등을 펴냈다.